

모두를 위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주요작 공개

‘너라는 세계’ 주제…8월30일 개막

삶·모빌리티 등 디자인 조명
배려·연결로 인류 공존 모색
이동 약자 사회적 포용 강조

‘포용디자인’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요 전시작품이 공개됐다. 단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디자인을 넘어 사회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세계 각국의 실천적 사례들로 구성됐다.

18일 (재)광주비엔날레는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주요 전시작을 소개했다. 오는 8월30일 개막하는 이번 전시는 ‘너라는 세계: 디자인은 어떻게 인간을 끌어안는가’를 주제로 사회의 다양한 존재와 삶을 인식하고 포용하는 디자인을 조명한 다.

1전시관에는 ‘포용디자인과 세계’를 주제로 영국 왕립예술대학원 헬렌 함린 센터의 작품 ‘롤레이터’가 전시된다. 전동 스쿠터와 밸런스 보드를 결합해 기존 보

행 보조기기의 기능을 개선한 디자인으로, 연령과 신체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포용디자인과 삶’을 주제로 한 2전시관에서는 미국 스마트 디자인의 ‘옥소 굿그립 감자칼’을 선보인다. 관절염을 앓던 가족을 위해 고안된 제품이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으로 발전한 사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포용의 철학을 보여준다.

3전시관은 ‘포용디자인과 모빌리티’를 주제로 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선보이는 ‘볼륨스퀘어: 특수 재난 대응 모바일 팝업 병원’은 재난 상황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이동형 병원이다. 장애인, 노약자, 감염자 등 배제 없는 응급 대처를 위한 디자인 관점에서의 해결법이 돋보인다.

디자이너 다니 클로드의 ‘세 번째 엄지손가락’은 손에 추가로 착용할 수 있는 로봇 보조 엄지손가락이다. ‘포용디자인과 미래’를 주제로 한 4전시관에 들어설 작품은 ‘인간-기계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가을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이처럼



오는 8월30일 개막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에서 1전시관에 선보이는 영국 왕립예술대학원 헬렌 함린 센터 작 ‘롤레이터’.

디자인을 통해 공존과 연결의 가치를 시각화할 전망이다. 포용적 사회를 향한 새로운 시선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시 현장은 포용디자인을 △세계 △삶 △모빌리티 △미래라는 네 가지 관점으로

구성해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문제를, 디자인을 통해 새롭게 바라보게 한다.

전시 외에도 다양한 프로젝트와 학술 행사가 마련된다.

개막일인 8월30일 개최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세계 포용디자인 전문가들과

디자이너, 정책입안자, 연구자들이 모여 현대 디자인의 전략과 사회적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발표될 ‘광주 포용디자인 매니페스트’는 글로벌 디자인계에 포용디자인의 가치를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72시간 포용디자인 챌린지’에서는 국내외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다양한 포용적 디자인 설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을 선보이며 제품, 공공, 서비스, 인터랙션 등 디자인 영역에서 창의적인 접근을 보여줄 예정이다.

광주와 연계된 ‘광주 도시철도 포용디자인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광주송정역을 중심으로 현장 리서치와 분석을 거쳐, 이용자 누구나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시설 디자인을 제안하는 결과물이 3전시관에서 소개된다.

이날 최수진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은 “디자인은 모두가 편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한 통합의 언어”라며 “이번 비엔날레는 확장된 포용디자인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영사기 교체한 광주극장서 ‘4K 기획전’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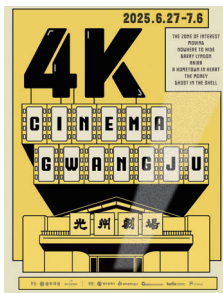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특별상영회

국내 유일의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이 개관 90주년을 맞아 새로운 4K 레이저 영사 시스템을 도입해 한층 개선된 상영 환경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18일 광주극장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기획전 ‘4K 시네마 광주’를 선보인다. 기획전을 통해 디지털로 복원된 고전 및 명작 영화들을 엄선해 상영한다.

기획전에서는 한국영상자료원이 복원한 한국 고전영화 두 편, 윤용규 감독의 ‘마음의 고향’ (1949)과 김소동 감독의 ‘돈’ (1958)이 상영된다. 두 작품은 각각의 시대적 맥락과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아울러 1999년 개봉작으로 씨네21 선정 역대 한국영화 30편 중 하나로 꼽힌 ‘인정사정 볼 것 없다’도 4K 포맷으로 관객과 만난다. 28일 오후 4시에는 이명세 감독이 직접 극장을 찾아 관객과의 대화



(GV)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일본 애니메이션의 전환점을 이룬 SF 걸작 ‘아기라’ (1988), ‘공각기동대’ (1995)를 포함해 1980년대 일본 영화의 흐름을 바꾼 소마이 신지 감독의 ‘이사’ (1993) 등도 스크린에 걸린다.

또한 아우슈비츠의 참상을 독창적인 시선으로 담은 문제작 ‘존 오브 인터레스트’ (2023)와, 거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배리 린든’ (1975)도 상영된다.

한편 이번 시설 개선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광주극장을 꾸준히 후원한 시민과 기부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가능했다. 광주광역시 동구가 최근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해 마련한 기부금 2억2000만원을 지원해 광주극장의 노후화된 영사기 교체가 이뤄질 수 있었다.

박찬 기자

아시아 문화자원관리활용 국제포럼 오늘 개최

ACC ODA 성과와 미래 논의
키르기스스탄 등 문화부 참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19일 ACC 국제회의실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ACC 문화자원관리지원 ODA(공적개발원조)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한 국제포럼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ACC가 주최하고 전남대학교, (사)무형문화연구원, (주)인디고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국가유산청과 키르기스스탄·라오스·몽골 문화부 관계자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대거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아시아 문화자원의 디지털

관리·활용 방안과 협력국 사례를 공유하고,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포럼은 2018년 이후 ACC가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등과 추진해온 ODA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몽골과의 신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CC ODA 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핵심 과제로, 아시아 문화 다양성 보존과 가치 확산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상욱 전당장은 “ACC 개관 10주년을 맞아 ODA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발전 방향과 모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문화정보통합이카이프 서비스의 기능성과 지속 가능한 ODA 전략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낭만주의 음악을 채색하다… ‘Brilliant Colours’

광주시향 397회 정기연주회
내달 25일 광주예술의전당
이수빈 바이올리니스트 협연

낭만주의 음악에 화려한 색을 입힌 무대가 광주의 한여름 밤을 화려하게 물들인다.

광주시립교향악단(광주시향)은 다음달 25일 오후 7시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397회 정기연주회 ‘Brilliant Colours’를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이병욱 예술감독 지휘와 이수빈 바이올리니스트의 협연으로 펼쳐진다. 각기 다른 문화적 영감을 바탕으로 창조된 세 작품을 통해 음악이 어떻게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지 조명한다.

광주시향은 이날 카르멘 서곡으로 연주회의 문을 연다. 이 작품은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중 하나로 스페인 남부의 이국적 정취, 리드미컬한 전개, 웅축된 오케스트레이션을 담았다.

이어 랄로의 스페인 교향곡이 연주된다. 프랑스인의 상상 속에서 구현된 스페인의 정열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독특한 작품이다. 5악장 구성이라는 실험적 형식과 리드미컬한 선율, 민족적 요소의 적절한 활용이 인상적이다. 이수빈 바이올리니스트의 개성 있는 해석이 랄로의 이국적 회화를 더욱 강렬하게 꾸밀 예정이다.

이수빈 바이올리니스트는 그간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KBS교향악단과 협연을 펼친 바 있다. 메뉴인 국제콩쿠르, 인디애나폴리스 국제콩쿠르, 몬트리올 국제콩쿠르 등에서 수상했으며 2013년 다비드 오이스트라흐 바이올린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주목받고 있다.

연주회는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초등학생부터 관람 가능하며 입장권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박찬 기자

베르나르 베르베르 해설 클래식 공연 ‘키메라의 시대’

ACC재단 8월 24일 극장1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 초이스’로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세종솔로이스츠의 ‘키메라의 시대’를 8월 24일 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 1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오는 8월 국내 출간을 앞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소설 ‘키메라의 땅’을 바탕으로, 작가가 직접 대본을 집필하고 해설자로 무대에 오른

다.

세종솔로이스츠와 드니 성호의 기타, 최나경의 플루트 연주가 더해지며 관객에게 문학과 클래식 음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소설 ‘키메라의 땅’은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을 알리며 전쟁이 끝난 이후의 세계를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인 후성유전학과 유전자 돌연변이 전문가인 진화생물학자 알리스카머리는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결합해 각각 땅속, 하늘,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새로운 존재(키메라)를 창조한다. 새로운 생명체가 생존 환경을 넓혀가는 가운데 기존 인류는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번 공연에서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어울리는 음악과 해설을 통해 이전에 없던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 관람료는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이며, ACC재단(www.accf.or.kr)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다.

김성수 기자